

찬송받으실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

1/22 월요일

아침의 누림

행 7:2

2 스데반이 말하였다. “형제들과 어르신 여러분, 들어 보십시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거주하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시어

롬 9:23

23 하나님께서 또 영광에 이르도록 예비하신 긍휼의 그릇들에 대하여 그분의 영광의 풍성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어찌하겠습니까?

딤후 1:11

11 이 건강한 가르침은 나에게 맡겨진, 찬송받으실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에 따른 것입니다.

출 40:34

34 그때에 구름이 회막을 덮고, 여호와와 영광이 성막을 가득 채웠다.

행 7:55

55 그러나 스데반이 성령으로 충만하여 눈여겨 하늘을 쳐다보니,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님께서 하나님 오른편에 서 계신 것이 보였다.

벧후 1:3

3 그분은 자신의 영광과 미덕으로 우리를 부르신 그분에 관한 온전한 지식을 통하여, 우리에게 그분의 신성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관련된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계 21:11

11 그 성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성의 빛은 가장 귀한 보석 같았고 수정처럼 맑은 벽옥 같았습니다.

엡 1:6, 10, 12

6 이것은 사랑하시는 분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이 찬송되도록 하시려는 것입니다.

10 때가 찰 때의 경륜을 위한 것입니다. 이 경륜은 만물, 곧 하늘들에 있는 것들이나 땅에 있는 것들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머리이신 그리스도 아래 통일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12 이것은 그리스도 안에 먼저 소망을 둔 우리로 말미암아 그분의 영광이 찬송되도록 하시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관한 스데반의 말은 하나님의 신약 경륜과 들어맞는다. 베드로는 그의 두 번째 서신서에서, 하나님께서 그분 자신의 영광으로 그리고 그분의 영광에 이르도록 우리를 부르셨다고 말한다(벧후 1:3). 우리는 우리 구주 하나님(벧후 1:1)의 영광에 의해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그분께서 다른 어떤 것보다, 다른 누구보다 더 뛰어나시다는 것을 깨닫고 결국 주 예수님을 받아들였다.

영광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아브라함은 그 영광에 매혹되고 사로잡혔다. 이 원칙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다. ...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에 사로잡혔다. 어느 날 영광의 하나님께서 복음 전파를 통해 우리에게 오셨을 때, 우리는 매혹되었고 강한 확신을 얻고 그분을 귀하게 여기기 시작했다. 그러는 동안에 영광의 하나님께서 그분의 존재의 어떤 요소를 우리 안으로 옮겨 부으셨고, 우리는 자연스럽게 그분을 믿게 되었다. 영광의 하나님께 매혹된다는 것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그분 자신을 그분께서 부르신 이들 안으로 그들이 그것을 의식하든 의식하지 못하든 옮겨 부으신다는 것이다. ... 만일 우리가 얼마 동안 하나님과 함께 머문다면, 하나님은 그분 자신을 우리 안으로 옮겨 부으실 것이다. 이러한 옮겨 부으심으로 인해 우리는 하나님을 주입받고 하나님으로 적셔지며 침투될 것이다. 일단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그분 자신을 옮겨 부으시면, 우리는 도망갈

수 없다. 그분을 믿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신약의 결론, 개정 증보판, 1 권, 신약과 하나님의 신약 경륜, 하나님, 메시지 4, 58-59 쪽)

오늘의 읽을 말씀

하나님은 사람을 하나님 담는 그릇으로 창조하셨고, 많은 그릇 중에서 우리를 선택하시어 존귀한 하나님을 담게 하셨는데, 이것은 우리를 존귀한 그릇이 되게 하시려는 것이었다.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그릇들인 우리에게 그분의 영광을 나타내심으로써 우리를 그분의 영광의 그릇들이 되게 하신다(롬 9:23). 이 모든 것이 그분의 긍휼에서 나오고 그분의 긍휼에 따른 것이지, 우리가 노력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런 이유로 우리는 하나님께 경배해야 하고, 그분의 긍휼에 대해 그분께 경배해야 한다! (롬 9:21 각주 1)

하나님의 경륜은 ‘찬송받으실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에 따른 것’(딤후 1:11)이다. 여러분은 이러한 표현을 들어 본 적이 있는가? 많은 이들이 은혜의 복음과 용서의 복음과 거듭남의 복음은 들어 보았지만, 영광의 복음에 대해서는 들어 보지 못했을 것이다. 영광의 복음은 죄들의 용서와 믿음에 의해 의롭게 됨에 관한 좋은 소식을 가져다줄 뿐 아니라, 또한 하나님의 경륜에 관한 복음이다. 영광은 하나님께서 표현되신 것이다. 그러므로 영광의 복음은 하나님께서 표현되신 복음, 즉 하나님의 영광을 표현하는 복음이다.

‘찬송받으실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은 뛰어난 표현이다. 이것은 디모데전서 1 장 4 절에 언급된 하나님의 경륜을 가리킨다. 바울에게 맡겨진 복음은 찬송받으실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이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과 본성을 선택하신 사람들 안으로 분배하심으로써, 이 복음이 하나님의 영광을 비춘다. 이 영광 안에서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 가운데서 찬송을 받으신다. 이것이 사도가 주님께 받은 위임과

사역이다(딤후 1:12). 우리는 각 지방에 있는 교회 안에서 이러한 복음을 보편적으로 가르치고 전파해야 한다.

디모데전서 1 장 17 절에서 바울은 “영원하신 왕, 곧 썩지도 않으시고 보이지도 않으시는 유일하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무궁히 있으시기 바랍니다. 아멘.”이라고 말한다. 이 말씀은 교회의 하락과 관련하여 이해해야 한다.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교회들은 하락하기 시작했고 상황은 매우 실망스러웠다. 많은 이들이 낙심했다. 심지어 바울의 어떤 동역자들은 그를 떠났다. 그러나 바울은 자신이 믿은 바로 그 하나님, 곧 자신에게 복음을 맡기신 분이 썩지 않으시고, 변하지도 않으시며,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시고, 영원하신 왕이시라는 강한 믿음과 절대적인 확신을 가지고 있었다. 그분은 결코 변하지 않으신다. 이 땅의 어떤 왕도 영원한 왕이라고 불릴 수 없다. 가이사는 일시적인 통치자에 불과하지만, 우리의 하나님은 얼마나 다르신지! 바울이 섬긴 하나님은 참으로 영원하신 왕이시다. 이것은 그분께서 영원무궁토록 왕이심을 의미한다. 그분은 결코 변하지 않으시며 언제나 동일하시다. (디모데전서 라이프 스타디, 메시지 1, 13, 16 쪽)

추가로 읽을 말씀: 디모데전서 라이프 스타디, 메시지 1

1/23 화요일

아침의 누림

고후 4:4, 6

4 그들 안에서 이 시대의 신이 믿지 않는 사람들의 생각을 눈멀게 하여,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빛이 그들에게 비치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6 왜냐하면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은 우리 마음속에 빛을

비추시어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지식을 밝히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요 12:31

31 이제 이 세상이 심판을 받을 때이니, 이 세상의 통치자가 쫓겨날 것입니다.

요 14:30

30 내가 더 이상 여러분과 많은 말을 하지 않겠는데, 이것은 이 세상의 통치자가 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는 내 안에서 아무것도 가질 수 없습니다.

요 16:11

11 ‘심판에 대하여’라 한 것은 이 세상의 통치자가 이미 심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엡 2:2

2 그대에 여러분은 그 가운데서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고, 공중 권세의 통치자 곧 지금도 불순종의 아들들 안에서 운행하고 있는 영의 통치자를 따라 살았습니다.

마 12:26-29

26 만일 사탄이 사탄을 쫓아낸다면 서로 싸워 갈라지는 것인데, 그래서야 어떻게 그의 왕국이 서겠습니까?

27 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들을 쫓아낸다면, 여러분의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냅니까? 그러므로 그들이 여러분의 재판관이 될 것입니다.

28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영에 의해 귀신들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왕국이 이미 여러분에게 와 있는 것입니다.

29 사람이 먼저 강한 사람을 결박하지 않고서, 어떻게 그의 집에 들어가 살림살이를 강탈하겠습니까? 결박한 후에야, 그의 집을 철저히 강탈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 장 3 절에서 바울은 “우리의 복음이 가려져 있다면, 그것은 멸망하는 이들에게 가려져 있는 것입니다.” 라고 말한다. 어떤 이들 안에서는 복음이 옛 관념들, 특히 율법에 관한 관념들로 가려져 있다(고후 3:14-15). 원칙적으로 철학, 종교, 문화적인 전통 등과 같이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깨닫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은 어떤 것이든지 너울이다. 따라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전파할 때 반드시 사람들의 너울을 벗겨야 하는데, 이것은 바로 사진을 찍을 수 있도록 렌즈의 덮개를 벗기는 것과 같다.

고린도후서 4 장 4 절에서 ‘이 시대의 신’은 사탄, 속이는 자, 현시대의 통치자이다. 그는 오늘날의 세상을 지배하고 사람들의 생각과 사상을 눈멀게 하여 사람들의 경배를 탈취하는 자이다. 이 절에서 눈멀게 했다는 것은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도록 가린 것을 뜻한다. 또한 여기서 ‘생각’은 ‘이해’ 혹은 ‘사상’을 의미한다. (고린도후서 라이프 스타디, 메시지 9, 85-86 쪽)

오늘의 읽을 말씀

눈멀고 가려진 이들은 자신들이 어떤 것도 경배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들의 신은 사탄이다. 무신론자들은 그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모른 채 사탄에게 경배한다. 미개하든 높은 문화 수준을 가졌든, 오늘날 거의 모든 사람이 이 시대의 신에 의해 눈멀어 있다.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계시를 받으려면 우리는 우리의 관념을 버려야 한다. 모든 관념은 영적이든 육체적이든 다 너울이다. 나는 계시를 얻는 법을 배우고자 여러 해를 들여 더듬어 찾았다. 마침내 나는 계시를 얻기 위하여 우리의 관념을 버려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오늘날 하나님은 모든 곳에서 빛을 비추고 계신다. 이 은혜의 시대는 빛의 시대이다. 하나님은 빛을 비추시고 성경도 빛을 비춘다. 성경은 빛으로 가득하고, 수백가지 언어로

인쇄되어 있다. 그뿐 아니라 땅 위에서 운행하고 계시는 모든 것을 포함하신 성령은 은혜로 가득하시다. 그러나 성경이 빛을 비추고 그 영께서 운행하고 계시지만,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계시를 받지 못한다. 그 이유는 그들이 어떤 관념들을 붙잡고 있고 그 관념들에 의해 가려져 있기 때문이다.

계시를 받는 데 있어서 하나님 편에는 아무 문제가 없다. ... 문제는 전적으로 우리 편에 있다. 우리는 너울들, 즉 우리의 관념들을 버려야 한다. 우리는 “주님, 제가 너울이 되는 모든 것을 버리도록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한다. ... 말씀을 읽을 때 관념을 버린다면 너울이 벗어난 얼굴로 읽게 될 것이고, 그러면 빛이 주관적으로 우리 안에 비칠 것이다.

오늘날 우리 중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살기를 간절히 갈망한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살려면 계시가 필요하다. 거듭 지적했듯이, 계시는 오직 우리의 관념들을 버릴 때 올 수 있다. 우리는 또한 이렇게 기도해야 한다. “주님, 저는 당신께서 이 시대의 신을 패배시키실 것을 신뢰합니다. 저는 당신 외의 어떤 것도 경배하지 않습니다. 주님, 제 마음을 당신께 돌이키고 저의 모든 관념을 내려놓습니다. 저는 당신 외에는 누구에게도 경배하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한다면, 빛이 비칠 것이고 계시를 받게 될 것이다. 우리가 우리의 관념들을 버리고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돌이킨다면, 너울들이 벗어지고 이 시대의 신은 우리 존재 안에서 어떤 입지도 얻지 못할 것이다.

우리가 살아 계신 인격에 대한 계시를 보려면 먼저 너울들, 즉 우리의 관념들을 버리는 것에서 시작해야 한다. 그 다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로 돌이켜야 한다. 고린도후서 3 장 16 절은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로 돌이킬 때 너울이 벗어진다고 말한다. 마음을 주님께 돌이킬수록 우리의 생활과 존재 안에서 이

시대의 신이 차지하는 입지가 점점 더 작아질 것이다. 그때 여러분은 하늘의 빛의 비춤 아래 있게 될 것이고, 살아 계신 인격에 대한 계시를 받게 될 것이다. ... 우리 모두가 너울들을 내려놓고 주님의 긍휼과 은혜로 우리 마음을 그분께 돌이키자. (갈라디아서 라이프 스타디, 메시지 4, 43-46 쪽)

추가로 읽을 말씀: 갈라디아서 라이프 스타디, 메시지 4; 신약의 결론, 개정 증보판, 21 권, 그리스도에 대한 체험과 누림 - 서신서들, 메시지 324; 요한복음 라이프 스타디, 메시지 36

1/24 수요일

아침의 누림

요 1:14

14 말씀께서 육체가 되시어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시니, 은혜와 실재가 충만하였다.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에게서 온 독생자의 영광이었다.

요 12:23-24

23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사람의 아들이 영광스럽게 될 때가 왔습니다.

24 내가 진실로 진실로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남아 있지만,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마 17:2

2 그들 앞에서 변형되시니, 그분의 얼굴은 해와 같이 빛나고 옷은 빛과 같이 희어졌다.

요 7:18

18 스스로 말하는 사람은 자신의 영광을 구하지만, 보내신 분의 영광을 구하는 그 사람은 참되며, 그 사람 속에는 불의가 없습니다.

요 8:50, 54

50 나는 나의 영광을 구하지 않으나, 나를 위하여 영광을 구하시고 심판하시는 분께서 계십니다.

54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나 자신에게 영광을 돌린다면, 내 영광은 아무것도 아니지만, 나에게 영광을 돌리시는 분은 나의 아버지이니, 곧 여러분이 여러분의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그분이십니다.

눅 24:46

46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삼 일에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날 것이며,

히 2:9-10

9 다만 우리는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님을 봅시다. 그분은 죽음의 고난을 받으시려고 천사들보다 조금 못하게 되셨습니다. 그것은 그분께서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것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10 만물은 하나님을 위하여 존재하고 또 하나님을 통하여 존재하므로, 하나님께서 많은 아들들을 영광 안으로 이끄시려고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시는 것은 합당한 것이었습니다.

삼일 하나님의 둘째 분이신 그리스도는 영원 과거부터 신성한 영광을 소유하고 계셨다. 요한복음 1 장 1 절은 말씀이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심을 계시한다. “태초에 말씀께서 계셨다.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말씀은 곧 하나님이셨다.”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는 신성한 영광이 있으시다. 그리스도는 영원과거부터 하나님이셨으므로 영원 과거부터 신성한 영광을 소유하고 계셨다. 신성한

영광이란 무엇인가? 신성한 영광은 하나님 자신이다. 하나님 자신께서 영광이시다.

그리스도의 육체 되심을 통해 그분의 인성은 그분의 신성의 영광을 감추는 껍질이 되었다. ‘그분의 인성’ 대신에 ‘그분의 육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더 나을 수도 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1 장 14 절이 하나님 자신께서 육체가 되셨다고 말하기 때문이다. 이 육체, 또는 이 인성은 그리스도의 신성의 영광을 감추는 껍질이 되었다. 그리스도의 신성은 신성한 영광 그 자체이다. 하나님께서 빛이신 것과 같이 신성은 영광이다. 그리스도께서 육체 곧 그분의 인성 안에 계셨을 때, 그분의 육체는 그분의 신성을 감추는 껍질이었다. 따라서 그분의 영광은 감추어져 있었다. (위트니스 리 고봉 메시지, 3 권, 그리스도께서 아버지께 의해 신성한 영광으로 영화롭게 되신 결과, 1 장, 11-12 쪽)

오늘의 읽을 말씀

신성한 영광이 그분의 육체라는 껍질 안에 감추어져 있었기 때문에, 그리스도는 영광스럽게 되실 필요가 있었다. 요한복음 12 장 23 절에서 그분은 “사람의 아들이 영광스럽게 될 때가 왔습니다.”라고 말씀하셨다. 17 장 1 절에서 그분은 “아버지, 때가 왔습니다. 아들을 영광스럽게 하셔서 아들이 아버지를 영광스럽게 하도록 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셨다. 5 절에서 그분은 계속해서 “아버지, 세상이 있기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그 영광으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광스럽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말씀하셨다.

하나님이신 그리스도 자신은 영광이셨지만, 이 영광은 그분의 인성이라는 껍질 안에 감추어져 있었다. 따라서 그분의 신성한 영광은 보이지 않았다. 사람들은 그분의 껍질을 볼 수 있었지만, 껍질 안에 감추어진 그분의 영광은 볼 수 없었다. 그러나 요한복음에서 사도 요한은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께서 온

독생자의 영광이었다.”(1:14)라고 말했다. 주님께서 산 위에서 변형되셨을 때, 요한은 베드로와 야고보와 함께 그분의 영광을 보았다(비교 마 17:2). 그분께서 변형되신 것은 일종의 영광스럽게 되심이었다. 그분은 육체라는 껍질 안에 사시던 중에 일시적으로 그분의 육체에서 나오셔서 영광스럽게 되셨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기 전에는 오직 세 사람만이 산 위에서 영광스럽게 되신 그 분을 보았지만, 그분께서 부활하신 후에는 수많은 사람이 영광스럽게 되신 그분을 볼 수 있다. 오늘날 우리는 여전히 껍질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껍질에서 나와 영광스럽게 되신 그리스도를 본다.

주 예수님은 육체라는 껍질의 억압에서 해방되기를 갈망하셨다. 그분은 요한복음 12 장 24 절에서 이 해방을 언급하셨다. … 주 예수님께서 한 알의 밀로서 죽지 않으셨다면 그분은 똑같은 상태로 계셨을 것이다. 그러나 그분은 땅에 떨어져 죽으셨고, 그 죽음은 그분의 인간 껍질에서 그분을 해방하였다. 주님의 육체 되심은 그분의 신성한 영광을 육체 안에 숨기신 것이었다. 그러나 주님의 죽음을 통해 그분의 영광이 해방되었는데, 이것은 부활 안에서 많은 밀알을 산출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 많은 밀알은 그분의 영광의 표현인 그분의 증가가 된다. (위트니스 리 고봉 메시지, 3 권, 그리스도께서 아버지께 의해 신성한 영광으로 영화롭게 되신 결과, 1 장, 12-15 쪽)

영원 안에서 등이신 어린양은 빛이신 하나님으로 빛을 비춤으로써, 신성한 빛의 표현인 하나님의 영광으로 새 예루살렘을 밝게 하실 것이다. 빛이신 하나님과 빛을 지닌 등이신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그리스도가 분리되실 수 없다는 것을 가리킨다. 사실상 그분들은 하나의 빛이시다. 하나님은 내용이시고,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표현되시도록 빛을 지니신 분이시다.

… 하나님 아버지는 아들 안에 계시면서 아들을 통하여 표현되신다.(신약의 결론, 개정 증보판, 2 권, 그리스도, 메시지 33, 189-190 쪽)

추가로 읽을 말씀: 생명 안에 있는 하나님의 구원, 4 장

1/25 목요일

아침의 누림

히 1:3

3 그분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이시고, 하나님의 실질의 표현이십니다. 그분은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들어 주시고 보존해 주시며, 죄들을 정결하게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 있으신 분의 오른편에 앉으셨습니다.

고후 3:18

18 그러나 우리 모두는 너울을 벗은 얼굴로 거울처럼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반사함으로써 그분과 동일한 형상으로 변화되어 영광에서 영광에 이릅니다. 이것은 주 영에게서 비롯됩니다.

골 1:15

15 이 아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시며, 모든 창조물 가운데 가장 먼저 나신 분이십니다.

고후 1:3

3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찬양을 드립니다. 그분은 자비의 아버지이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고후 4:3

3 우리의 복음이 가려져 있다면, 그것은 멸망하는 이들에게 가려져 있는 것입니다.

계 6:2

2 내가 보니, 흰색 말이 있고, 그 위에 탄 이는 활을 가지고 있었으며, 그에게 면류관이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는 정복하며 나아갔고 또 정복하려고 나아갔습니다.

롬 1:25

25 그들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과 맞바꾸고 창조물을 창조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겼지만, 영원히 찬양을 받으실 분은 창조주이십니다. 아멘.

롬 9:5

5 조상들도 그들의 조상이며, 육체로 말하자면 그리스도도 그들에게서 나셨습니다. 그리스도는 만물 위에 계셔서 영원히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이시다(히 1:3).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복음은 밝게 하고 빛을 비추는 그분의 영광의 복음이다. 이 시대의 신인 사탄은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이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비칠수없도록 그들의 사상과 생각을 눈멀게 했다. 이것은 사진기의 렌즈가 가려져 빛이 사진기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것과 유사하다. ... 셔터를 누를 때, 어떤 물체나 형태나 상을 담은 빛이 사진기 안으로 들어가 필름에 새겨진다. ... 그러나 카메라의 렌즈가 가려지면 빛이 사진기 안으로 들어갈 길이 없다. 때때로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은 렌즈가 덮개로 가려진 사진기와 같다. 빛이 그들 안으로 들어갈 수 없다. ... 주님의 은혜와 긍휼로 사탄의 너울이 우리 생각에서 제거되었다!

고린도후서 3 장 18 절에서 너울을 벗은 얼굴은 4 장에 있는 덮개가 벗겨진 생각이다. 바울의 사상에 따르면, 이 두 가지 것은 하나이다. 그러므로 너울을 벗은 얼굴을 갖는 것은 덮개가 벗겨진 생각을 갖는 것이다.(고린도후서 라이프 스타디, 메시지 9, 86-87 쪽)

오늘의 읽을 말씀

빛은 우리 안으로 들어올 때 그리스도의 형상을 가져온다. 이러한 빛은 우리의 생각을 통해 우리의 영 안으로 들어온다. 우리의 영은 필름에 비유될 수 있다. 빛 비춤이 우리의 열린 생각을 통해 우리 안으로 들어올 때, 그것은 우리의 영에 도달하여 그리스도의 모습 곧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 안으로 가져온다. 교회 안에서 우리는 이러한 영적이고 하늘에 속한 사진 찍기를 실행하고 있다.

고린도후서 4 장 5 절은 “이것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주님이시라는 것...을 전파하기 때문입니다.”라고 말한다. ‘이것은 ... 때문입니다.’는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인 사도들의 복음이 가려져서는 안 되는 이유를 설명한다. 사도들은 자신들을 전파하거나 높이 지 않고, 모든 것의 주님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을 전파하고 높였다. 또한 사도들은 예수님을 위하여 믿는 이들의 노예로서 처신했다.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주님이시라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만물 위에 계셔서 영원히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라는 것(롬 9:5)과 영원한 말씀께서 육체가 되시어 사람이 되신 것(요 1:14)과 예수님께서 사람으로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어 우리의 구주가 되시고(행 4:10-12)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신 것(행 13:33)과 그리스도께서 높아지셔서 주님(행 2:36), 심지어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의 광채(히 1:3)로서 모든 사람의 주님이 되신 것(행 10:36, 롬 10:12, 요 20:28, 고전 12:3)을 다 포함하고 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내용이다. 따라서 이 복음은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이며, 사람의 마음속을 밝게 하고 빛나게 하고 비춘다. 사람의 마음이 어떤 것으로 가려지거나 이 시대의 신, 곧 사탄에 의해 눈멀지 않는다면, 사람은 복음의 빛을 볼 수 있다.

고린도후서 4 장 6 절은 “왜냐하면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은 우리 마음속에 빛을 비추시어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지식을 밝히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라고 말한다. 이것은 앞 절에서 언급한 것을 설명한다. 사도들은 그리스도께서 주님이시라는 것을 전파했고, 자신들이 믿는 이들의 노예가 된 것을 전파했다. 왜냐하면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라고 말씀하신 바로 그 하나님께서 그들 마음속에 빛을 비추셨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우주 가운데 빛을 비추심으로 옛 창조물이 산출되었다. 이제 그분께서 사도들 마음속에 빛을 비추심으로 그들은 새 창조물이 되었다. (고린도후서 라이프 스타디, 메시지 9, 87-89 쪽)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빛을 비추시는 것은,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지식을 밝히시는 것으로 귀결된다. 즉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알도록 해 주는 빛 비춤으로 귀결된다. 그리스도의 복음의 영광을 알도록 밝게 하시는 것, 곧 밝혀 주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빛을 비추시는 것에서 비롯된다. (신약의 결론, 개정 증보판, 7 권, 믿는 이들, 메시지 113, 208 쪽)

추가로 읽을 말씀: 고린도후서 라이프 스타디, 메시지 9

1/26 금요일

아침의 누림

고후 4:4, 6

4 그들 안에서 이 시대의 신이 믿지 않는 사람들의 생각을 눈멀게 하여,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빛이 그들에게 비치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6 왜냐하면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은 우리 마음속에 빛을 비추시어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지식을 밝히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행 7:2-3, 55-56

2 스데반이 말하였다. “형제들과 어르신 여러분, 들어 보십시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거주하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시어

3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너의 땅과 너의 친척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 줄 땅으로 가거라.’

55 그러나 스데반이 성령으로 충만하여 눈여겨 하늘을 쳐다보니,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님께서 하나님 오른편에 서 계신 것이 보였다.

56 그래서 그가 “보십시오, 하늘이 열리고 사람의 아들이 하나님 오른편에 서 계신 것이 보입니다.”라고 하니,

요 17:1, 4-5, 22

1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드시어 하늘을 우러러보시며 말씀하셨다. “아버지, 때가 왔습니다. 아들을 영광스럽게 하셔서 아들이 아버지를 영광스럽게 하도록 하여 주십시오.

4 아버지께서 나에게 하라고 맡기신 일을 내가 완성하여, 이 땅에서 아버지를 영광스럽게 하였습니다.

5 아버지, 세상이 있기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그 영광으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광스럽게 하여 주십시오.

22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준 것은 우리가 하나인 것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 장 4 절에서 ‘하나님’, ‘형상’, ‘그리스도’, ‘영광’, ‘복음’, ‘빛’은 모두 동격으로서, 동일한 놀라운 인격을 가리킨다.

하나님은 형상이시고, 형상은 그리스도이며, 그리스도는 영광이시고, 영광은 복음이며, 복음은 빛이다. 첫째로,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표현은 형상이 하나님과 동격임을 보여 준다. 근원이신 하나님께는 형상이 있고, 이 형상은 바로 하나님 자신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본다면 하나님을 보는 것이다. 만일 하나님께서 사라지신다면 그분의 형상도 사라진다. ... 그러므로 하나님의 형상은 다름 아닌 하나님 자신이다.

둘째로, ... 하나님의 형상은 그리스도이다.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는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표현이다. 셋째로, 그리스도는 영광이시다.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이시라고 말하는 히브리서 1 장 3 절로 확정된다. 넷째로, 영광이신 그리스도는 복음이시다. 사도행전은 믿는 이들이 그리스도 예수님을 복음으로 전파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 준다(5:42, 8:35, 11:20, 17:18). 이것은 복음이 그리스도와 따로 떨어진 어떤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리스도께서 복음이시라는 것을 보여 준다. 오늘날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복음을 전파할 때 복음을 그리스도와 분리한다. 그러나 성경의 신성한 계시에 따르면, 복음은 그리스도라는 살아 있는 한 인격이다. 복음이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시고,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이다. 그러므로 복음은 그리스도 안에 체현되시고 표현되신 하나님 자신이다.(신약의 결론, 개정 증보판, 20 권, 그리스도에 대한 체험과 누림 — 서신서들, 메시지 317, 134-135 쪽)

오늘의 읽을 말씀

다섯째로, 복음은 빛, 곧 빛 비춤이다. 복음은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이며, 이 복음은 사람의 마음속을 밝게 하고 빛나게 하며 비춘다. 복음이 우리에게 왔을 때, 이 복음은 빛을 비춤으로써

우리에게 왔으며, 이러한 빛 비춤은 과정을 거치신 삼일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를 우리 안으로 이끌어 왔다. 그 결과, 살아 있는 인격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 존재 안으로 비추어지셨다. 많은 믿는 이들이 증언할 수 있는 것은, 그들이 그리스도를 복음으로 들었을 때 그리스도에 대한 어떤 인상이 그들 속에 들어왔다는 것이다. 그들이 그리스도에 대한 이러한 인상을 거절하거나 그들의 존재에서 지워 버리려고 노력할지라도 그렇게 하지 못할 것이다. 일단 그리스도에 대한 인상이 우리 안으로 밝게 비추어지면 영원히 우리 속에 남는다. 이러한 빛이 복음이고, 이 복음이 영광이며, 이 영광이 그리스도이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시며, 이러한 분으로서 그리스도는 하나님이다. 그러므로 우리 존재 안으로 밝게 비추어진 것은 살아 있는 인격, 즉 하나님의 형상이시자 표현이신 그리스도 안에 체현되신 삼일 하나님이다.

믿는 이들은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빛을 통하여 탁월한 보배이신 영광의 그리스도를 받아들인다. 우리는 우리 안에 보배, 즉 세상보다 더 탁월한 살아 있는 인격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그리스도는 온 우주에서 가장 탁월한 분이시다. 그 분보다 더 탁월한 것은 없다. 우리는 보배이신 그리스도, 곧 가장 탁월하시고 가장 사랑스러우신 분을 소유하고 있으므로 세상을 사랑하지 않는다. 요점은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탁월하시고 사랑스러우신 그리스도라는 보배보다 못하다는 것이다. 우리는 세상보다 주님을 더 보배롭게 여긴다.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빛이 우리에게 비치었다. 고린도후서 4 장 4 절에 나오는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은 6 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지식과 일치한다. ...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지식을 밝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다. 이것은 사도가 전파한 복음이 일종의 교리나 신학이나 가르침이 아니라 사랑스러운 한 인격이고, 이 인격의 얼굴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곧 하나님의 형상을 볼 수 있다는 것을 가리킨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서 빛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할 때, 이러한 비추심은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를 우리 안으로 이끌어 온다. 우리는 그러한 그리스도께 매혹되었다. (신약의 결론, 개정 증보판, 20 권, 그리스도에 대한 체험과 누림 — 서신서들, 메시지 317, 135-136, 140-141 쪽)

추가로 읽을 말씀: 신약의 결론, 개정 증보판, 20 권, 그리스도에 대한 체험과 누림 — 서신서들, 메시지 317

1/27 토요일

아침의 누림

빌 2:15-16

15 그것은 여러분을 나무랄 데 없고 순결하게 하여, 어그러지고 비뚤어진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들이 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런 세대 가운데서 세상의 발광체들로 빛나서

16 생명의 말씀을 밝히십시오. 그래서 내가 헛되이 달리지 않았고 헛되이 수고하지도 않았다는 것을 그리스도의 날에 자랑하도록 해주십시오.

고후 4:7

7 그러나 우리는 이 보배를 질그릇 속에 담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 탁월한 능력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지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나타내시려는 것입니다.

요 1:18

18 일찍이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었으나,

아버지의 품속에 계시는 독생자이신 그분께서 하나님을 나타내 보이셨다.

마 5:13-16

13 여러분은 땅의 소금입니다. 그러나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겠습니까? 더 이상 아무 쓸모없어 밖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밟힐 뿐입니다.

14 여러분은 세상의 빛입니다. 산 위에 있는 성은 숨겨질 수 없습니다.

15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않고 등잔대 위에 둬므로, 그것이 집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을 비춥니다.

16 이와 같이 여러분의 빛을 사람들 앞에 비추어, 그들이 여러분의 좋은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여러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십시오.

엡 5:8-9

8 여러분이 전에는 어둠이었으나, 이제는 주님 안에서 빛입니다. 빛의 자녀들답게 행하십시오. 9 (빛의 열매는 온갖 선과 의와 참된 것에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은 먼저 우리 속으로 비추어 들어오고, 그런 다음 우리 속에서부터 비추어 나간다. 영광이 우리 속에서 빛날수록, 이 영광은 더욱더 우리 존재를 관통하고 적신다. 결국, 우리 안에 있는 영광이 우리의 내적 존재 전체를 태워 버리고 삼킬 것이다. 그럴 때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빛이 우리를 통해 비추어 나갈 것이다. 이렇게 빛을 비추어 내는 것은 가르침의 방식으로는 일어날 수 없고, 오직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시고 하나님의 나타남이신 그리스도 자신을 체험할 때에만 일어날 수 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존재의 깊은 곳 안으로 빛을 비추셨고, 지금은 우리 안에서 빛을 비추고 계시며, 우리의 내적 존재 전체를 비추실 것에 대해 주님을 찬양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안에 영광으로 계신 그리스도의 내적인 비추심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하나님의 경륜의 목표는 우리 모두가 그분의 영광을 비추어 내는 것이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빛 비추심 아래 있을 때, 그리스도는 그분 자신으로 우리를 적시시며, 우리는 우리의 생명과 인격으로 우리 안에 살고 계시는 그리스도의 달콤함을 누린다. (신약의 결론, 개정 증보판, 20 권, 그리스도에 대한 체험과 누림 — 서신서들, 메시지 317, 136 쪽)

오늘의 읽을 말씀

고린도후서 4 장 6 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빛을 비추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지식을 밝히시는 것, 즉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의 영광을 알려 주는 빛 비춤으로 귀결된다. ... 하나님께서 우주 가운데 빛을 비추심으로 옛 창조물이 산출되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빛을 비추심으로 우리는 새 창조물이 되었는데, 왜냐하면 이러한 빛 비춤이 질그릇인 우리 안으로 영광의 그리스도라는 놀라운 보배를 가져오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빛을 비추시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영광을 알도록 우리를 밝게 비추시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히 1:3)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표현되신 영광의 하나님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광의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특별히 고린도후서 4 장 6 절에서 '밝히신'은 하나님께 빛 비춤을 받은 사람들에게서 나온 하나님의 빛이 다른 사람들을 비추는 것을 가리킨다. 이것은 고린도후서 4 장 2 절에 있는 '나타내어'와 일치하고, 마태복음 5 장 16 절과 빌립보서 2 장 15 절에 있는 '빛나서'와 동일하다. 하나님은 다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알도록, 즉 하나님을 표현하고 나타내신 그리스도(요 1:18)를 알도록 사람들을 비추시기 위해, 먼저 우리 마음속에 빛을 비추신다.

하나님께서 빛을 비추시는 것을 체험하려면, 우리는 그리스도를 직접적이고도 개인적이며 애정 어린 방식으로 접촉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접촉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빛을 비추실 수 있다. 하나님은 우리 위에 빛을 비추실 수도 있지만, 우리가 그분께서 우리 ‘속’에 빛을 비추시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그분과 직접적이고도 친밀한 접촉을 가져야 한다. ... 주님을 부름으로써 우리는 그분을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고 접촉하는 데로 이끌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빛을 비추시는 것을 체험한다. 우리가 주님과 그렇게 직접적이고 개인적이며 친밀한 접촉을 가질 때에만, 우리는 내적인 빛 비춤을 얻는다. 언제든지 친밀하고 사랑스러운 방식으로 주님을 부를 때, 우리는 그분의 얼굴 앞에 있게 되고, 하나님의 빛 비추심이 우리 마음속에 있게 된다. 그런 다음 우리는 우리가 받은 것을 비추어 냄으로써 그리스도의 복음의 영광이 빛을 비추도록 할 수 있다.

우리는 빛을 비추는 방식으로 복음을 전파해야 한다. 이것은 우리가 말씀을 전하는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의 말을 듣는 사람들의 마음속으로 빛을 비추신다는 뜻이다. 또한 우리는 그들이 주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이럴 때 그들은 그리스도의 얼굴로 이끌려 그분과 개인적인 접촉을 가지며,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속에 빛을 비추시는 것을 체험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방식으로 복음을 전파하는 것은 그저 어떤 사실들이 담긴 복음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영광의 복음을 제시하는 것이다. 영광의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그들 안으로 분배되신 그리스도를 귀중한 보배로 소유할 것이다. 그러면 우리처럼 그들도 이 보배를 담은 질그릇들이 될 것이다. (신약의 결론,

개정 증보판, 20 권, 그리스도에 대한 체험과 누림 — 서신서들, 메시지 317, 136-138 쪽)

추가로 읽을 말씀: 신약의 결론, 개정 증보판, 20 권, 그리스도에 대한 체험과 누림 — 서신서들, 메시지 317

추가로 읽을 말씀

디모데전서 라이프 스타디, 메시지 1 쪽

찬송: 948 (英) 감취었던 비밀
나타났으니 (中:764)

교회전체 로마서 진리추구

The All-inclusive Christ, chs. 9-10

1/28 주일

아침의 누림

시 24:7-10

7 성문들아, 머리를 들어라. 오래 건디어 온 문들아! 들러라. 그리하면 영광의 왕께서 들어가시리라.

8 영광의 왕이 누구신가? 강하시고 능하신 여호와! 전쟁에 능하신 여호와이시다!

9 성문들아, 머리를 들어라. 오래 건디어 온 문들아! 들러라. 그리하면 영광의 왕께서 들어가시리라.

10 이 영광의 왕이 누구신가? 만군의 여호와 그분께서 영광의 왕이시다! 셀라

살전 2:12, 20

12 그것은 그분 자신의 왕국과 영광 안으로 여러분을 부르시는 하나님께 여러분이 합당하게 행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20 여러분이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입니다.

벤전 5:10-11

10 그러나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을 그분의 영원한 영광 안으로 부르신 분께서 잠시 동안 고난을 받은 여러분을 직접 온전하게 하시고, 견고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고, 터를 튼튼하게 하실 것입니다.

11 하나님께 영광과 권능이 영원무궁히 있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엡 3:20-21

20 이제 우리 안에서 운행하는 능력에 따라,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보다 더욱 넘치도록 해 주실 수 있으신 하나님께

21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무궁히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